

#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·인프라 동향 보고(1.9)

## 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### 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분	내용	비고
은행간 환율	110.00 Tk/USD (전주대비 0.00△)	'24.01.09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4.12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8.84% (전월대비 0.81△)	'24.12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4년 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### 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-0.5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Jan 2, 2024	No change	8.505 % Jan 9, 2024
1 Month	0.0 bp	8.505 % Dec 9, 2023	No change	8.505 % Jan 9, 2024
6 Months	0.0 bp	8.505 % Jul 9, 2023	No change	8.505 % Jan 9, 2024
1 Year	-0.5 bp	8.450 % Jan 24, 2023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8.505%  
Last update: 9 Jan 2024 3:15 GMT+0

### □ 잔여 외환보유액 203억 8천만 달러 (ACU 12억 7천만 지불 차감)

-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아시아결제연합(ACU)과의 11~12월 수입 대금 12억7000만 달러 결제에 따라 203억8000만 달러를 기록.

\* ACU 결제 게이트웨이는 방글라데시, 부탄, 인도, 이란, 몰디브, 미얀마, 네팔, 파키스탄, 스리랑카 등 9개 회원국이 역내 수입을 위해 거래하는 금전 거래를 포함

## □ 일본, 외국 원조 제공국 1위

- 일본,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원조 지출국 1위를 차지.
- 역사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이번 회계연도(FY) 7~11월(2023~24년) 동안 6억1098만 달러를 원조.
- ERD에 따르면 이 총액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합계보다 거의 1.5배 높은 수치.

\* ADB는 3억8793만 달러, WB는 4억4427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 제공.

- 23 회계연도 수치로 따지자면 일본은 ADB보다 더 높고 WB와 거의 유사한 수준.

\* 일본은 23 회계연도에 19억 달러 상당의 차관과 보조금 원조, ADB는 15억 6천만 달러, WB는 19억 3천만 달러 원조.

## □ 의류 수출, 2023년 사상 최대인 473억 8천만 달러 벌어들임

- 수출촉진국(EPB)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47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2022년 세운 종전 기록을 약 10.27% 뛰어넘었음.
- 2022-23 회계연도에 의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.27% 증가.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 수출은 6.67% 증가.

## 2. 건설 · 인프라 시장 동향 **·총선관련, 인프라뉴스 상대적 부족**

### □ 덴마크 기업, 랄디아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에 4억 달러 투자

- MAERSK 그룹의 자회사인 덴마크의 거대 항만회사 APM 터미널은 치타공 항만청과 민관협력(PPP) 협약을 통해 3~4억 달러를 투입해 채토그램의 랄디아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.
- 이는 PPP 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덴마크 정부간 첫 G2G PPP 플랫폼 회의를 통해 발표된 것.

- PPPA 청장 Md Mushfiqur Rahman 박사 및 주덴마크대사관 크리스티안 브릭스 뮐러 대사가 첫 플랫폼 회의를 주재.
- 총리실 수석비서관, Md Tofazzel Hossain Miah는 진보적인 항만 인프라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언급하면서 G2G PPP 모델이 방글라데시의 비전 2041을 실현하고 스마트 방글라데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.
- PPPA는 제안된 라디아 컨테이너 터미널(부두 길이 450m, 정박 수심 10.5m)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.
-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직접투자(FDI)와 함께 3억-4억 달러의 예상 투자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. 채토그램 항만청은 연간 양허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약속.
- 앞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MAERSK 그룹 회장은 2023년 8월 27일 회의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.

#### □ 지하철 건설, 관리역량 부족으로 사업지연

- MRT 6호선이 준공이 지연되면서, 시민들은 운행기준(12시간/일) 미충족에 대해 불만 토로.
- 총선을 앞두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 증폭.
- 다카시 대중교통공사(DMTCL)는 "2019년 1단계로 모집한 인력으로 MRT 6호선 일부 운영을 했지만 명시된 업무강도의 절반도 충족할 수 없었다"고 발표. DMTCL은 운영 중인 메트로 레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충족할만한 공사 자체의 역량 부족을 인정.
- 필수 열차는 완전히 가동되고 서비스 수요는 높은 상황에서, 직원 채용을 위한 조속한 적절한 계획과 재정 배분이 필요한 상황임.

### 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#### □ 아와미리그, 2/3이상 압도적 승리

- 아와미리그는 제12대 총선에서 2/3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AL이 주도하는 14당 연합이 4선 연속 정권을 수립할 기회를 다시 얻음.
- 아와미리그(AL)가 지원하는 후보들이 222석을 차지했고 대부분이 AL 소속인 무소속 후보들이 62석을 차지. 자티야당 후보들은 11석을 차지했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당, 자티야 사마즈탄트릭 달자소드, 칼리안당 등 3개 정당의 단일 후보 3명이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.
- 아니술 후크 국회의사무처 장관은 12대 의회 선출직 의원들의 선서식이 2024년 1월 10일에 열릴 것이라고 밝힘.

#### □ BNP, 총리의 사임, 합법적인 정부를 위한 새로운 여론조사 요구

- BNP는 금번 총선을 취소하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. BNP 상임위원은 새로운 행동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.
- 각종 협박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데려가지 못했으며, 각종 국가 권력의 남용, 더미 선거관리위원회나 통제된 언론의 이용, 각종 변명으로 인해 금번의 총선을 1·7 위장선거로 일컫고 있음.

#### □ 미국 국무부, <sup>방</sup>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음

- 총선은 “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“고 미 국무부가 밝힘. 미 국무부는 워싱턴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고 폭력을 규탄했다고도 밝힘.

\*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(8일) 발표한 성명에서 "미국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다른 관측통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으며, 모든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밝힘.

- 성명은 "수천 명의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고 선거일에 부정행위가 보고되는 데 대해 워싱턴은 우려해왔다"고 덧붙이면서, "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에 대한 보고를 신뢰할 수 있게 조사하고 가해자들

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. 우리는 또한 모든 정당들이 폭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"고 밝힘.

□ 셰이크 하시나, 방글라데시에서 유권자 투표율 논란 속에 5선 연임

- 야당의 보이콧 및 빈 투표소 보도 이후 40%의 공식 투표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.
-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11월 초 제1야당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발표된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총리로서 5선 연임에 성공.
- 또한, 무소속 후보들이 총 63석을 확보해 222석을 얻은 하시나의 아와미리그(AL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석을 확보.
-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 야당인 자티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.
- 사실상, 무소속 당선자들은 거의 모두 AL 당 지도부로부터 투명한 선거를 위장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요청을 받은 인사로 구성.
- AL의 주요 정적인 BNP는 하시나 행정부 대신 중립적인 기관에서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랐던 것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선거를 치른 데 대해 불만을 제기.
- 1월 7일 오후 4시 투표가 마감된 후,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40%라고 밝혔으며, 많은 사람들은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의구심 표명.